

극단적 인간형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 교양인 <문제적 인간> 시리즈



‘문제적 인간’. 인간이라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에서 근대소설의 주인공을 ‘문제적 개인’이라고 명명했다. 긍정의 문제적 개인이든 부정의 문제적 개인이든 간에 문제적 개인은 역사를 이끌어 왔고, 소설의 주인공처럼 실제의 세계에 존재하는 운명이다. 이런 생각들은 교양인에서 <문제적 인간>시리즈를 출간하면서 현 시대의 ‘문제적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게 만들었다.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다음에 보여줄 인물이 기다려지곤 했다. 교양인 이승희 편집장과 인터뷰를 통해 <문제적 인간>시리즈의 기획의도와 출간과정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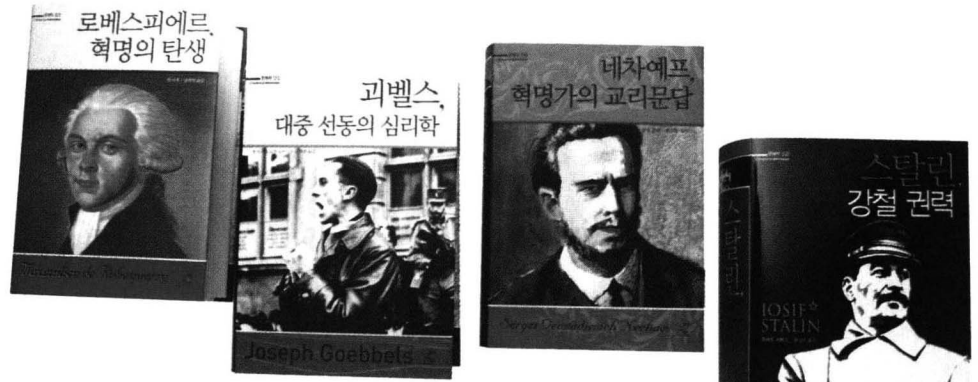
<문제적 인간> 시리즈 기획의도에 대해 이승희 편집장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근대 이후 세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계기를 만든 인물, 한 시대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간 인물을 다루는 평전 시리즈”라고 설명했다. 즉 근대적 인간형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근대란 과연 무엇인지를 해명하고, 한편으론 극단적 인간형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이다.

교양인 출판사는 2004년 6월 《헌법의 풍경》(김두식 지음)을 출간하면서 출발했다. <문제적 인간> 시리즈는 교양인이 출판사 등록을 할 때부터 기획을 시작한 시리즈이다. 급하지 않게 오래 숙성시켜 내놓은 저작들만큼 편집자들의 애정도 깊고 각별하다. 이승희 편집장은 “외국의 특정 평전 시리즈를 계약해 발간하는 형식이 아니라, 먼저 ‘문제적 인간’에 해당하는 인물을 선정하고 대상 인물을 다룬 책 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찾아 한 권 한 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적 인간> 시리즈는 2005년 8월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2006년 1월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2006년 7월 《네차예프, 혁명가의 교리문답》, 2007년 2월 《스탈린, 강철 권력》까지 모두 네 권이 출간됐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독자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문제적 인간>이 무수히 많은 평전들보다 차별화되는 점이다. 국내 독자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분야의 석학이 자신의 모든 학문적 성과를 담아 쓴 결정적 저작이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해당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책을 찾고 있다. 최근 출간된 《스탈린》의 예를 들어보자. 《스탈린》은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로버트 서비스 교수가 쓴 야심작인데, 특히 스탈린에 대해 일반 독자들이 갖고 있는 상투적 이미지,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내용이 인상적인 책이다.



근대 혁명의 기획자이자 모든 혁명가들의 전범이 된 로베스피에르를 다룬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은 로베스피에르 평전의 최고 고전으로 꼽히는 책을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어 특유의 난해함 때문에 양희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시는데만 1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완성된 원고를 보니 200자 원고지 2,000장 분량이었고, 서울대 최갑수 교수님의 한국어판 머리말과 편집부에서 만든 부록까지 덧붙여 752쪽의 책으로 완성됐습니다.”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은 히틀러 신화의 창조자인 제3제국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평전인데, 역사학자이자 괴벨스 일기의 편집자인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가 쓴 책이다. 200자 원고지 4,700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이었지만, 번역을 맡아 주신 김태희 선생의 성실함과 꼼꼼함 덕분에 편집자가 할 일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네차예프, 혁명가의 교리문답》은 19세기 러시아 혁명가 세르게이 네차예프를 다룬 책이다. 네차예프는 혁명의 대의를 내세워 동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었으며, 그 때문에 스탈린의 전조라고 불렸다. 이 책은 윤길순 선생이 번역을 담당했고, 러시아 혁명사를 전공한 서울대 서양사학과 한정숙 교수가 이 책을 위해 특별히 한국어판 머리말을 집필했다.

올 2월에 출간한 《스탈린, 강철 권력》은 역시 윤길순 선생이 번역을 맡았다. “스탈린이라고 하면 흔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끔찍한 숙청 작업을 벌인 잔혹한 통치자’, ‘혁명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레닌의 후계자가 된 무미건조한 관료’, ‘매력 없고 뚱한 관료 출신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스탈린은 젊은 시절에 시인을 꿈꾸었던 문학 청년이었고, 상당한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자 독서광이었죠. 가장 유력한 레닌의 후계자 후보였던 트로츠키를 물리치고 스탈린이 당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굳은 의지와 치밀한 정치 전략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승희 편집장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이 책은 철저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 스탈린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부수어 주는 책이다.

각 권은 500쪽이 훌쩍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래서 ‘간혹 일부러 두툽한 책만 골라서 내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한 인물의 삶과 그의 시대를 깊이 있게 다룬 결정적 저작을 찾다 보니 뜻하지 않게 항상 두꺼운 책을 내게 된다고.

《문제의적 인간》 시리즈를 내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독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나 내용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한 책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라는 점이다. 이는 번역자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언지를 준 내용이다. 번역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동태 문장이나 사물주어를 배제하고 우리말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노력이 보인다. 특히 《문제의적 인간》 시리즈의 경우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편집자들이 신경 써서 주석을 작성해 놓았다. 이런 세심한 배려로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굳이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의적 인간》 시리즈에서는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인물을 중심으로 책을 선정하지만 이미 소개되었다 해도 새로운 연구 성과가 담긴 책이라면 언제든 출간할 생각이다. “2007년에 출간할 계획인 《히틀러 평전》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연구에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요아힘 페스트의 《히틀러 평전》이 이미 국내에 소개되었지만 그의 책은 1970년대에 지은 것이어서 이후 추가된 연구 성과는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교양인에서 준비 중인 《히틀러 평전》은 현재 세계적으로 제3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히틀러 연구의 저본으로 불리는 이언 커쇼(Ian Kershaw)의 《Hitler, 1889-1936 : Hubris》와 《Hitler, 1936-1945 : Nemesis》를 번역한 책입니다.”

《문제의적 인간》 시리즈 한 권 완성할 때마다 교양인의 편집자들은 거의 2주 이상을 제대로 일하지 못할 정도로 녹초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리즈를 기억하고 다음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늘고 있어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낸다는 이승희 편집장은 매우 소박한 인사로 독자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했다. “《문제의적 인간》이 완성도 높은 평전 시리즈로 독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